권두언

학문을 존중하는 風土

학문은 그 사회의 정신문화(精神文化)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학문에 평생을 바친 학자들에 대해서 국가사회가 우대해 줌으로써 이들이 그 국가사회 발전에 있어서의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각국은 서로 경중(輕重)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학술원의 설립을 통하여 학자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종 학술원의 설립목적을 분석해 보면, 대략 세가지 유형(類型)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첫째는 미국, 노르웨이, 독일, 캐나다 등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활동 목적이 보다 뚜렷한 형태이다. 이들 국가의 학술원은 과학분야의 발전을 위해 연구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적이 각종 보고서와 간행물 형태로 활발하게 발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학술행사와 학술교류가 활발하여 명실공히 학술원이 그 나라 최고의 두뇌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학술원은 보다 다원적 조직을 갖고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 회원의 평균 연령도 비교적 낮은 편이다.

다음에는 학자의 우대(優待)목적이 뚜렷한 형태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것은 영국, 인도, 일본, 호주, 네덜란드 등의 학술원인데, 이들 국가의 학술원 회원은 정책책임자들에게 주요 정책에 대하여 자문을 하며, 국가의 원로로서 우대받는다. 또한 귀중한 학문업적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시상을 하고, 학문분야에서 국가의 대표로 파견한다. 그 국가사회가 학자에 대한 예우를 갖춤으로써, 이러한 상징적 역할이 보다 건전한 국가사회 발전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학자들 입장땐 국왕도 기립

이에 비해 양자(兩者)의 절충형태를 띠고 있는 국가는 스웨덴,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이다. 이들 국가의 학술원은 양자의 설립목적을 고루 갖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역사가 오래되고 운영이 잘 되는 국가의 학술원은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형태, 예우형(禮遇型), 연구형(硏究型), 절충형(折衷型) 중의 한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학술원이 있는데, 그 설립연도나 특징도 각기 다르다. 각국 학술원의 설립연도를 살펴보면, 영국이 1662년으로 가장 먼저이고, 다음은 프랑스의 1666년, 세번째가 스웨덴으로 1739년이다. 스웨덴의 학술원(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KVA)은 주로 '과학탐구활동의 유지와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특징 중의 하나가 '노벨상'의 시상이다.

노벨상 시상식은 격식을 갖춘 권위있는 대행사로써 행사장에는 5백65석의 좌석이 있는데, 이곳의 입장권을 얻은 사람은 생애의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왕실석에 있는 국왕도 학술원 회원들의 입장시에는 기립했다가 회원들이 착석한 후 다시 앉는다고 한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정부나 민간이 베푸는 중요한 행사에 초청된 학술원 회원을 총리보다도 앞인 맨 앞자리에 앉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학자를 존중하는 기풍(氣風)은 그 나라의 발전을 좌우하는 발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은 언제쯤이면 스웨덴이나 프랑스와 같은 풍토를 가질 수 있게

崔 亨 燮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노벨상 시상식에서 학술원 회원들이 입장할 때는 국왕도 기립하여 회원들을 맞는다. 이처럼 학문에 평생을 바친 학자를 우대하는 제도로 각국에서는 학술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어느 시대, 어느사회에서도 그 사회가 발전하려면 학문하는 분위기가 올바르게 되어야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학문을 존중하는 풍토와 더불어 학문하는 사람들의 품위와 자세는 그나라 장래를 예견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될 것인가?

학술원은 정신문화의 지주

드럭커(Peter Ferdinand Drucker)는 『단절(斷絶)의 시대』라는 그의 저서에서 "현대사회는 기술문명과 지식인에 의해 주도되며, 조직화된 집단의 의사가 표출되는 다원적 사회로서, 급격한 기술변화, 경제의 세계화, 지식자원의 중요성, 남북문제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드럭커가 지적한 이러한 현대사회의 특징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도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급격한 공업화의 추진에 따라 경제적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고, 나아가 정치적 민주화에 따라 단일의 권위적 사회구조에서 각 이익단체가 저마다의 의사를 표시하는 다원적 사회구조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또, 우리를 둘러싼 세계경제도 소위 세계화(Globalization)에 따라 세계적 시야를 갖지 않고는 성장·발전을 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는 정신문화적인 요소가 감퇴하는 반면, 물질화, 기계화의 경향이 증대되어 가고 있다. 행위의 규범은 정립되지 않은 채, 지나친 경쟁으로 말미암아 인간성은 극도로 황폐화하고,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소위 수단-목적의 도치(倒置)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자기만의 안일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팽배해 있다. 실로 오늘날 우리의 산업사회는 성장과 발전은 있으되, 이를 지원할 윤리·도덕은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켜야 할 도리와 의무는 빼놓고 권리·권한만 주장하거나, 또 상대방의 역할과 인격은 무시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리사욕만을 추구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은 외면한 채, 적당주의, 기회주의를 추구하고, 자기에게 부과된 의무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轉嫁)시키며, 자기의 권리와 권한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근본(根本)의 상실(喪失)', '규범의 상실'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여기에 현대산업사회에서의 학술원의 위상과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구체적인 학술원의 위상과 역할은, 현대 기술문명에서 그 바탕이 되는 정신문화 창조의 핵심으로서 윤리를 확립하여 계속적인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결국 학술원은 물질만능의 현대 산업사회에서 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로서, 학술진흥을 바탕으로 하는 '물질과 정신의 복합화'라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이를 계승하는 데 그 본연의 역할이 있다고 하겠다.

학자들의 품위와 자세 중요

어떠한 시대,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그 사회가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려면 학문하는 분위기가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문을 존중하는 사회풍토와 더불어 학문하는 사람들의 품위와 자세는 그 사회 혹은 그 나라의 장래를 예견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학문하는 사람들의 구심체라고 할 수 있는 학술원의 역할을 한번 더 다짐하고 넘어갔으면 한다.